

데스크 시국



채희중 사회부장

형을 처음 알게 된 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10년 전인 2009년 봄이 맞을 겁니다. 어찌 이전에 '조선대(朝鮮大)'라는 형의 이름 석 자를 몰랐을 것이며, 그 넓고 아름다운 캠퍼스를 한 번이라도 거닐어 본 적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동생이 대학 출입 기자라는 신분으로 만난 스무 살 연상의 형은 출생 사연부터 성장 과정이 워낙 낱달라, 당시 크게 놀랐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밝히오.

오랜 세월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형의 진면목을 몰랐고, 기자 생활을 10년이나 한 뒤에야 그것도 대학 담당 기자가 되고 나서야 형을 알게 된 것이 열었기까지 했소. 그전까지 내가 아는 형의 모습은 그저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사립대라는 것이었소. 거기에 박철웅 총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학 비리에 맞선 학원 민주화운동으로 퇴출됐다는 정도가 내가 아는 전부였소.

처음에는 형 관련 기사를 쓰려니 막상 한 줄도 쓸 수가 없었소. 우선 대학 소유

'10년 지기' 형(조선대)에게

권에 대한 복잡한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없었어요. 또 형의 처지가 스스로 대학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없어 정부가 관리자를 파견한, 이른바 임시이사(관선이사) 체제의 대학이었기 때문이었소. 당시 형처럼 사학 비리와 소유권 분쟁, 학원 민주화 투쟁 등이 혼재된 대학을 '분규 대학'이라 불렀고, 전국에는 이런 곳이 서너 군데가 있었지요.

우리나라 최초의 민립 대학

담당 기자로서 저는 형의 출생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946년 초대 광주시장이자 이듬해 전남 지사에 임명된 애국지사 서민호 선생이 대학 설립을 주컾든 것이 태동의 시작이지요. 그는 도내 유지, 기관장, 지식인들과 함께 민립 대학 설립을 위해 조선대설립동지회를 결성했어요. 심지어 대학 설립을 위한 회비와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매일 간부회의를 할 정도로 열성이었다는 지역 원로들의 증언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복 직후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인 1946~1947년에 무려 7만여 지역민(설립동지회원)의 정성으로 형의 '출생 신고'(조선대 설립 인허가)가 이뤄졌죠.

일제 강점기인 1920년대 우국지사들의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이 수차례 전개됐으나 총독부에 의해 모두 와해된 이후, 형은 광복과 함께 탄생한 한국 최초의 민

립 대학이자 지방 최초 사학이라는 영광을 한 몸에 받고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 지역민이 이 사실을 몰랐고, 심지어 조선대 교직원과 학생조차 제대로 아는 이가 많지 않았죠. 조선대의 분란은 민립 대학이 특정인의 소유가 되면서 시작됐다고요. 설립을 주도한 서민호 전남 지사 밑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했던 당시 운수과장 박철웅 씨가 60년대를 거치면서 조선대를 사실상 사유화한 것이지요. 그러나 1988년 1월 8일, 학내 민주화 운동으로 일컫는 1·8 항쟁을 정점으로 대학 구성원들은 비리를 저지른 박철웅 씨 측 경영진을 축출합니다. 더불어 대법원에서 조선대는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소유가 아닌 설립동지회, 즉 도민들의 힘으로 세워진 대학임을 인정받지요.

민립 대학임은 인정받았으나 경영 주체가 공백인 탓에 정부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했어요. 20여 년간을 분규 대학으로 낙인찍혔던 형이 대학 정상화에 전력할 때가 바로 우리가 만났던 시기지요. 이렇게 형을 만난 뒤, 2009년에 쓴 첫 번째 기사가 '조선대가 또 아프다'였소. 비리로 물러났던 옛 경영진이 교과부를 통해 이사진으로 복귀하려는 통에 대학 구성원들이 진통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6개월의 임시이사 재파견을 거쳐, 분규 21년 만인 2009년 12월 형은 '대학 정상화'(정이사 파견)라는 기쁨을

맛보게 되지요. 이 과정에서 저는 토요일에도 대학 본부에 들를 정도로 거의 매일 취재를 했고, 교직원들과 함께 교과부로부터 정이사 파견을 얻어 내기 위한 아이디어도 주고받곤 했던 기억이 나네요. 형이 정상화됐을 때 저의 기사 한 줄이 교과부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생각에 얼마나 가슴 벅찼는지 모릅니다.

설립 정신 사라지고 혼란만

이후 업무가 바뀌어 다른 부서들을 돌아 10년 만인 지난 11월 다시 대학 출입 기자로서 형을 만나게 됐지요. 형은 한국 최초 민립 대학이자 지방 최초 사학이라는 위상은 고사하고, 어렵게 이뤄 낸 정이사 체제 대신 임시이사 체제 대학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교육부의 대학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에 들지 못하는 수모를 당했고요.

지역민의 자랑이었던 형은 이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민에게 짐만 되는 존재가 됐습니다. 호남 거점 대학으로서의 당당한 풍채를 가졌던 형의 모습은 어디로 갔습니까? 아리저리 찢긴 채 갈 곳 몰라 헤매는 형을 보며 이 아우의 가슴은 미어집니다. 아직도 자신들의 입지와 학과·연출만을 챙기는 이들을 보며, 아예 형을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마저 드는 것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chaeh@kwangju.co.kr

社說

예산 졸속 심의 지역 사업 누락되지 않도록

여야가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 예산안 처리를 놓고 대치하면서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예산안에서 누락된 광주·전남 현안 사업 예산의 추가 반영과 이미 반영된 예산의 삭감 저지가 절실한 상황에서 여야 갈등으로 '날림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제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여야의 합의 정신을 무시하는 일이라며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정부 예산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 개혁안의 동시 처리를 민주당과 한국당에 촉구하며 여제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처럼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는 했지만 야당의 보이콧으로 표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야 합의로 수정 예산안을 마련해야 통과가 가능한 상황인데, 감액과 증액 심사는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예산조정 소(小)소위에서 이뤄진다. 격정되는 것은 이 과정에서 광주·전남 현안 사업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것인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특히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평화당은 교섭단체가 깨지면서 소소위에 참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해까지만 해도 당내 '호남 특위'에서 지역 예산을 꼼꼼히 챙겼지만 현재는 그런 흐름을 찾아보기 힘들다. 바른미래당도 호남 예산 확보를 위해 여야 협상에서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

현재 지역의 미래를 위해 추가 확보가 절실한 사업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실상 타결된 광주형 일자리와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남해안철도 및 광주 송정-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예산 등등. 지역 국회의원들은 소속 정당을 떠나 촘촘한 공조로 자칫 지역 사업들이 외면받지 않도록 막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5·18 왜곡 가짜 뉴스 여전히 판치고 있다니

가짜 뉴스가 판치는 세상이다. 일반적으로 가짜 뉴스는 최근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가짜 뉴스는 수십 년 전부터 있어 왔다. 한때 5·18민주화운동을 껍데기-왜곡하는 가짜 뉴스들이 인터넷 블로그·SNS·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등에서 여전히 판치고 있음이 최근 5·18기념재단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5·18민주화운동 방송 및 가짜 뉴스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에서 다시 확인됐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5·18 유공자 가족은 가산점이 있어 공무원 취업 기회를 싸먹어하고 있다' '5·18때 계엄군이 아니라 시민군이 민간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 '시민군이 광주교도소를 습격했다' '5·18유공자들이 6·25참전 용사보다 더 큰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일부 종편은 5·18 관련 보도는 축소하

는 대신 5·18유공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유튜브 등에서는 대부분 '지만원의 시스템 클럽'과 프리덤뉴스에서 뉴스 형태로 올라온 글들을 인용함으로써 가짜 뉴스를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정부 공동조사단이 사실이라고 밝혔던 5·18 성폭력마작 경찰과 시민군이 가해자였다는 내용이 극우 성향 사이트와 개인 블로그 등에 게재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5·18 왜곡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난 2016년 6월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5·18가짜 뉴스로 5·18과 광주에 대한 편견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서둘러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은펜칼럼



송민석 수필가·전 여천고 교장

이웃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연말이다. 12월 들어 구세군의 자선냄비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모금함 등장은 우리의 잠든 의식을 일깨운다. 찬 바람이 부는 초겨울, 조금만 눈여겨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이웃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생생 협력을 지향하는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매년 연말이면 불우 이웃 돕기 캠페인이 벌어진다. 많은 사람이 알게 모르게 불우 이웃 돕기에 나선다. 수년간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기부하는 얼굴 없는 천사들도 있다. 이렇듯 은정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은 살 만한 것이 아닐까 한다. '장미를 전해준 사람의

얼굴 없는 기부 천사들

손에는 향기로운 장미 향이 난다.'고 한다. 빨간 사랑의 열매를 상징하는 '사랑의 온도탑'에 이어 구세군 자선냄비도 대장정을 시작했다.

"할머니께서 하늘나라로 가시는 길에 마지막으로 주신 용돈입니다. 금액은 적지만 좋은 일에 따뜻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자선냄비에 남긴 쪽지의 내용이다. 이처럼 자선냄비 앞에 아장아장 걸는 아이로부터 부축을 받는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얼굴 없는 천사들'의 선행이 매년 줄을 잇는다. 간혹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기부자들이 나타나 시중의 화제가 되기도 한다. 지난 17년 동안 한해도 거르지 않고 소외 계층을 위해 써 달라며 큰돈을 놓고 간 전주시 노송동의 '얼굴 없는 천사가 대표적이다. 지난 10월에는 과일 가게를 하면서 평생 모은 두가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인도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가난하고 병든 빈민 구제를 위해 일생을 바친 마더 테레사 성녀의 봉사 활동을 그린 기록 영화가 있다. 이 영화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실패 대상자들의 면역 기능이 상승했

다는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결과가 있다. '마더 테레사 효과'란 것이다. 이처럼 봉사 활동을 통해 선행을 베푸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다른 사람이 선행을 베푸는 것을 보기만 해도 행복감과 더불어 신체 면역 기능이 향상된다고 한다.

"남을 위해 나누고 베푸는 사람일수록 긍정 호르몬인 엔도르핀이 더 많이 생성된다."는 미시간대학 연구결과도 있다. 진한 감동을 받거나 기쁘고 즐거울 때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인체의 면역력을 키워준다고 한다. 이처럼 자연은 인간이 진화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게 되면 그 보상으로 면역 항체를 증가시켜 오래 살도록 해 놓은 셈이다. 남을 돕는 것이 나의 건강은 물론 이웃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길이다.

근대와 과정에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과거의 편제 현상으로 나눔이 이름만 지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복지 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아직도 한쪽에서는 남아 돌고, 한쪽에서는 부족해서 아우성이다. 국내 굴지의 기업 총수가 수백 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민낯이다. 세금을 포탈하고 기업 자금을 유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행태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욕심은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나 페이스북의 저커버그 같은 젊은 풍운아의 기부 행동과 그런 국가의 문화가 이제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었던 한다. 굳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는 서양의 격언을 빌리지 않더라도 경주의 최부자 집은 '사방 100리 안에 굶어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가훈을 지켜왔다고 한다.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기부 천사와 같은 작은 불씨들을 잘 보듬어야 할 것이다. 이들의 선행을 함께 되새기고 불씨를 점화시켜 타오르게 해야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우리가 다 함께 가꾸어 나가야 할 사회적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이제 행복의 기준을 외적 조건이 아닌 내적 충만함으로 바꾸자. 마더 테레사 수녀는 '나눔은 우리를 부자로 만든다'라고 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공감하는 능력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소외된 이웃을 되돌아보고 나눔의 씨앗을 뿌리는 훈훈한 12월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기 고



나강열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도시의 발전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왕정 국가나 전제 군주 시대에는 도시 조성을 위해 막대한 지원과 노동력의 투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계층이 중심이었지만, 일반적으로 도시의 변화와 혁신 과정은 도시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구성원들의 노력과 경쟁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도시에서의 경쟁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시민들이 관용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창의적인 시민 계층들이 연대하여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사례는 유럽에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스마트 리빙랩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스마트 리빙랩은 도시를 하나의

도시, 스마트 리빙랩의 플랫폼으로 활용하자

실험실로 인식하고 현대 도시의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분석함으로써 실제 정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다. 요즘에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기반한 스마트 기기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도시 정책의 의견 수렴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와 융·복합을 유도하는 '스마트화'가 강조되고 있다.

암스테르담, 코펜하겐, 칼라사타마 등 서구 유럽 도시들은 스마트 도시화를 새로운 혁신 전략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 도시들은 도시 인프라, 행정, 에너지, 교통 등 특정 분야의 스마트 도시화 보다는 도시 대부분의 영역에서 스마트화를 발전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스마트 도시화는 시민들과 도시 인프라가 첨단화된 도시 운영체계에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 도시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스마트 리빙랩을 통해 도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스마트 도시 조성의 성공은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정책들이 스마트 리빙랩을 통해 선행되었을 때 그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 및 수요에 대응하는 사업,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들이 혁신 플랫폼 체계를 통해 구축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스마트 리빙랩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 지역의 스마트 리빙랩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내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광주·전남 지역 특성에 기반하는 시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광주는 대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대기 환경 개선, 공유 주차장 도입 등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전남은 인구 고령화와 1차산업 고도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스마트 리빙랩 추진 단계별로 공공이 주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스마트 리빙랩 추진 단

계는 현황 분석 및 의견 수렴 단계, 서비스 솔루션 및 시스템 설계 단계, 사업 추진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에서는 공공 영역에서 지역의 현황 분석과 시민 의견의 수렴 작업을 시행하고, 2단계에서는 주요 핵심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과 아키텍처 개발을 지원하는 마중물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3단계에서는 사업 추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담 부서 설치,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한 행정적 기반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간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스마트 리빙랩을 통해 비즈니스 생태계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마트 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이나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 스마트 리빙랩을 통해 스마트 도시의 적응을 미리 해보는 것, 스마트 리빙랩의 플랫폼으로 도시를 활용하는 것이 광주·전남을 스마트 도시화하고, 혁신을 추진하는 지역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無等鼓**

전라도를 맛의 고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개미진' 음식 때문이다. 찰진 갯벌과 기름진 들과 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 덕분에 원재료가 좋다 보니 예부터 음식 맛이 좋을 수밖에 없었다.

풍부한 원재료는 지역별 특산 음식을 만들어 냈다. 장흥은 매생이와 삼합(한우+키조개+표고버섯), 강진의 한정식, 나주 곱창과 흥어, 벌교 꼬막, 여수 새조개 및 갯장어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특산 음식이 많다 보니 전라도에선 어느 식당에 가더라도 크게 후회

명성을 떨치고 있다. 나주 하얀집은 한우 양지, 목심, 사태로 육수를 내 투명하고 깔끔한 맛으로 나주곱창의 진미를 보여 주고 있다.

맛의 고장임에도 전라도는 음식을 브랜드로 키우는 마케팅에는 취약하다.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의 상당수가 경쟁도를 비롯해 다른 지역에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전북까지 포함해 호남에 분사를 둔 토종 프랜차이즈는 264개(지난해 기준)로 전국의 6.2%에 그쳤으며 가맹점 수는 100개 이상을 둔 대형 프랜차이즈는 10개에 불과했다.

**'백년가게'**

서도 3대째 대를 이어 오는 100년 맛집은 그리 흔하지 않지만 몇 군데 꼽을 수 는 있다. 1924년 문을 연 해남 천일식당은 전라도 3대 식당으로 명성을 떨쳤다. 창업주인 고 박성순 여사가 고향으로 한 때 명맥이 끊길 뻔했지만 딸이 서울에 '해남 천일관'이란 이름으로 문을 열면서 3대째 남도 한정식의 진수를 이어 가고 있다. 담당 신식당도 3대째 한우 암소갈비만 고집하면서 떡갈비를 만들고 있다. 3일간 숙성시킨 갈비에 양념을 발라 만든 떡갈비는 '담양식 떡갈비'로 전국적인

그쳤으며 가맹점 수는 100개 이상을 둔 대형 프랜차이즈는 10개에 불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전국에서 48곳의 "백년가게"를 선정했는데 광주와 전남에서는 달랑 1곳씩만 이름을 올렸다. 30년 이상 된 음식점 가운데 경쟁력 있는 곳을 선정해 컨설팅, 홍보, 금융 등의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관심이 없어 신청 자체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치단체에서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겠지만 무작정 손맛만 믿고 손님을 기다리는 사업주들의 의식도 바꿀 필요가 있었다.

/장필수 전남본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율 국 220-0515 (FAX 222-8005)	문 화 부 220-0661 (FAX 222-0195)	문 화 부 220-066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문 화 부 220-0661	문 화 부 220-0661
경 처 부 220-0632	여 론 채 부 220-0652	여 론 채 부 220-0652	여 론 채 부 220-0652
정 체 부 220-0663	예 향 부 220-0692	예 향 부 220-0692	예 향 부 220-0692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사 진 부 220-0693	사 진 부 220-0693
전 남 본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체 육 부 220-0697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